미국에서도 RN들이 「캪」을 쓰지않고 열심히 열심히 병동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간호원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 전문직업인으로써 태도가 분명하여 호감이 갔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 기타 부서의 여직원들도 흰 유니폼에 백색의 굽낮은 구두를 신었음에도 RN들이 구별됨은 그들의 책임한계가 명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같이 사용해도 그렇고, 우리가 벗고 그들이 쓴다면 한동안은 혼란이 올 것이다. 우둔한 국민이 아니어서 곧 간호원과 보조원을 구별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외모에 있어 당분간은 간호원이 보조원으로 보일 것이고 보조원이 간호원으로 보일 것이다(명칭도 간호보조원을 보조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들은 흔히 보조원을 빼고 간호원으로 자칭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헤어나려면 간호원만이 「캪」을 쓰는 것을 고수하되 형식적이기는 하나 전 간호계 학교에서 옛처럼 엄숙하고 진지한 가관식을 하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반대로 간호원들이 Cap을 벗어야 한다면 현대간호사업의 방향이 임상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과도기적인 과정이 어느날엔가 불가피하다면 빨리 오면 올수록 좋겠다. 단 간호원으로써 뚜렷한 직업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전회원들이 노력하면서…….

"秩序가 파괴되어 가는 現代라해도 「캪」을 벗어버릴 이유는 없다"

서울대학병원
간호과장 홍 경 자

「나는 나의 一生을 純潔하게 살며 내 職務에 充實할 것을 하나님과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 서약하나이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福祉를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나이다.」

처음 흰 캪을 머리에 쓰고 나이팅게일 서약문을 낭독했던 受冠式날의 설레임은, 임상경험을 通해서 人間의 苦痛과 거역할 수 없는 죽엄의 瞬間을 맞는 患者를 看護하며, 看護職을 擇한 自身에 對해 懷疑가 懷疑를 낳으면서, 나름대로 成長 할 수 있었던 始發點이 되었다.

흰 유니폼에 흰 캪. 이것은 職業人으로서 看護員에게만 주어진 特權으로 一般사람들에게도 看護員의 代名詞처럼 常識化되어 왔다. 이제 秩序와 정돈과 形式이 파괴되어가는 現代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캪을 벗어버릴 理由는 없지 않을까. 한때는 음식점의 女從業員이 캪을 쓰더니 얼마전에는 몇개월 동안의 훈련을 거친 看護補助員이 캪을 쓰기로 결의하고 全國的으로 受冠式을 완료했다고 한다. 受冠式에서 그들은 차마 나이팅게일 선서는 하지 못하였으리라.

요즈음 많은 私立綜合病院의 看護補助員들이 하얀 간호원 복장에 하얀 캪까지 쓰고 患者에게 어엿한 看護行爲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自身의 健康을 내어 맡기는 患者를, 나아가서는 地域社會 住民을 기만하는 行爲라고 볼 수 있겠다.

顧傭主의 측에서는 資格看護員보다 싼 賃金에 一般患者나 地域社會住民들로 하여금 看護員과 꼭 같은 印象을 주니 一石二鳥라 생각하겠지만, 캪을 쓴 看護補助員이 직분의 한계를 넘어선 看護行爲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過誤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지?

국민의 健康을 돌보는 醫僚人의 양심으로써 近視眼的인 思考는 버려야 겠다. 無資格者가 看護員의 캪을 쓴다는 것이 無識한 所致임을 自覺한다면, 스스로 그들의 머리에서 캪이 벗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 캪이란 看護員의 職業的 資格의 表示인 동시에 職業的 象徵일진대, 우리는 나이팅게일의 後裔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간호원으로서의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캪을 써야 하겠다.